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8월16일(연중 제20주일)		8월23일(연중 제21주일)	
특전 미사	해 설	최옥영 M.막달레나		*	
	1독서	안정준 바오로		*	
	2독서	김인숙 세실리아		*	
새벽 미사	해 설	박승규 엘리시오		이상희 로마	
	1독서	도정숙 메히틸다		전정환 요한	
	2독서	박동주 F.로마나		김영애 요안나	
교중 미사	해 설	정미화 M.막달레나		이가희 소피아	
	1독서	강연옥 헬레나		원은희 율리아	
	2독서	배점미 안나		손 요안나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8월17일(월)	8월18일(화)	8월19일(수)	8월20일(목)	8월21일(금)
해설	변은숙 M.막달레나	김재실 에바리스또	도정숙 메히틸다	차화선 스텔라	황숙자 베로니카
독서	김진화 레지나	겸손하신 모후	하늘의 문	정의의 거울	거룩하신 어머니

8월16일 (연중 제20주일)	차량봉사(8/15일 어린이미사)	어린이 미사 없음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성가정회, 자모회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사목회 회장단
	미사안내	재경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정의의 거울 Pr.
	성전청소담당 8/10(월)-8/16(일)	6구역 신용반
	차량봉사(좌곤리)	강연옥(헬레나)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 박안홍(시몬) 후 : 박계현(프란치스코)
8월23일 (연중 제21주일)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차량봉사(8/22일 어린이미사)	최설(바오로)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성가정회, 자모회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전례분과
	미사안내	사목회장단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정의의 거울 Pr.
	성전청소담당 8/17(월)-8/23(일)	6구역 주호반
	차량봉사(좌곤리)	김영자(프란치스카)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 주양원(요셉) 후 : 신강순(도미니코)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사랑터

제1699호

연중 제20주일

2020년 8월16일

주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전 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345-2357(Fax)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16:00어린이, 18:30특전 (주일) 6:30, 10:30

- 아래 모임의 대표들은 구성원들에게 미사 참석 여부를 확인해서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소공동체, 레지오, 성모회, 연령회, 켐마회, 울뜨레아, 성소후원회, 체나콜로기도회

■ 제대회 이번 주 모임(교중미사 후)

■ 꾸리아 평의회 개회
-일시: 8/16(일) 교중 미사 후
-장소: 강당
-참석대상: Cu.간부 / Pr.단장

■ 동티모르 외국인 미사 이번 주 17시30분

■ 유아세례 신청
-일시: 8/29(토) 16:30분

■ 진영 산악회 8/23일 13시 출발
-장소: 표충사 둘레길

■ 병자영성체(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매월 첫 금요일 미사 후(9/4일)

■ 견진성사
-일시:9/9(수) 19:30분
-교리:9/1~4일 19:30(화, 목은 미사 후 교리)

■ 미사 참석 시 유의사항
-타 지역에 다녀오거나, 타 지역 사람을 만나 고 오신 교우님은 미사참석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교육관 미사참석)

- 화 답 송 -



교무금 : 8월 8일(토) - 8월14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김가영(아나다시아)	8	윤무출(베드로)	6-8	이희숙(말가리다)	8
장정호(요한)	7-8	이흥기(요한)	8	정정옥(아네스)	7-9
이정남(안젤라메리치)	8	전영석(디모테오)	8	서정아(프란치스카)	8
김정수(마리아)	8	정상중(벤자민)	6-7	김순교(글라라)	8
윤덕규(레미지오)	5-7	이몽삼(마태오)	7-8	김선미(베로니카)	8
김판곤(오네시모)	8	임문자(루치아)	8	한승순(안젤라)	8
노영곤(도미니코)	7	장경훈(바르나바)	8	안모니가(모니카)	8
장도영(마태오)	8	배해경(미리암)	8	정재복(아벤티노)	8
송계용(바오로)	9	신성철(안토니오)	8	김승원(마오로)	8
김영현(요셉)	7-9	김광자(세실리아)	8-9	노정옥(카타리나)	8
이재권(요셉)	8	김정미(루치아)	8	이원구(F.하비에르)	8
주민숙(안젤라)	3-10	박두리(아네스)	8	박순연(마리아)	8
김종금(글라라)	8	박을순(마리아)	7-8	최용훈(안드레아)	8
구슬이(에메렌시아나)	8	김병찬(바오로)	8		
교구사업모금(2020년 예정액2,811만원중 850만원 봉헌) : 8월 8일(토) - 8월14일(금)					
이희숙(말가리다)	8	서정아(프란치스카)	8	김선미(베로니카)	8
이정남(안젤라메리치)	7-9	장도영(마태오)	8	배해경(미리암)	8
송계용(바오로)	9	김승원(마오로)	8	이재권(요셉)	1
김정미(루치아)	8	김종금(글라라)	8	김병찬(바오로)	8
■ 용원성당 성전건립 기금			주일 미사 참례자수 : 372 명		
-기간: ~ 2020년 4월 30일 -분담금 57,700,000원(교무금 4개월분 납부) -봉헌 누계: 48,558,000원(206세대 납부완료) -모든 세대 납부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3,898,000원	
			주일 헌금	1,999,200원	
			교구사업모금	403,000원	
			성소후원금	178,000원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단체별 미사참석 여부 연락 현황

단체명	총인원(세대수)	미사참례	냉담	타지역,병환	전화연락
1구역 연합반	57(24세대)	19	19	19	15
1구역 대근반	54(23세대)	24	18	12	10
1구역 하계반	50(17세대)	10	23	19	7
1구역 이진,에코반	102(35세대)	31	57	14	21
2구역 서구2반	57(27세대)	24	30	3	11
2구역 북구반	111(48세대)	32	34	45	5
3구역 여래1반	36(20세대)	12	23	1	20
3구역 여래2반	72(23세대)	16	45	9	24
4구역 코아루1반	76(22세대)	28	40	8	9
4구역 자이반	107(47세대)	20	53	2	32
5구역 중흥1반	88(39세대)	29	35	2	38
순교자의 모후 Pr.	10	10			
거룩하신 어머니 Pr.	8	8			
평화의 모후 Pr.	7	7			
하늘의 문 Pr.	10	10			
군중후원회	78	64		14	
계	923명	344명	377명	148명	192명

주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다.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주신 해의 날이기 때문이다. 주일은 범죄로 어둠 속을 헤매는 인간에게 빛을 주신 날이다. 이 빛은 곧 그리스도의 승리인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일은 한주간의 첫째 날이다. 창조주께서 빛을 창조하신 첫 날이 주일이다. 빛을 창조하신 빛의 날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주일을 ‘작은 부활 주일’이라고도 했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6일간 창조 사업을 하시고 쉬신 날이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출애20,8)고 하시면서 구약의 계명을 주셨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점이 되고 또한 교회가 출범한 성령 강림 축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제자들은 ‘주님의 날’로 전했다.

주일이 처음부터 쉬는 날은 아니었다. 다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미사를 집전하는 날이었다. “안식일 다음날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사도20,7) 그러므로 초대 신자들에게 주일은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미사 의식을 거행하는 날이었다. 그 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자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 쉬는 날로 정한 것이다.

신자들에게 주일은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는 의무가 지워지기 시작한 것은 6세기부터였다. 그러나 교법상으로 주일에 미사에 참례하고 쉬어야 하는 규정은 1234년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의 칙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성 아우구스티노도 이렇게 말했다. “주일에 종교적 의식을 갖추어 지내기를 신도들과 사도 시대의 사람들이 제정했다. 그 이유는 그날에 우리 구세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까닭이다. 그러므로 주일이라고 부른다.”

한모금 소금 이론

사랑은 손에 쥔 모래와 같다. 손바닥을 편 채 가만히 있으면 흘러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더 껍 잡으려고 손을 움켜지는 순간,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손바닥엔 조금만 남게 된다. 사랑도 그렇다. 두 사람이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조금의 여유를 주면 사랑은 오래 머문다. 하지만 너무 강한 소유욕으로 서로를 껍 움켜쥐면, 사랑은 어느새 두 사람 사이를 빠져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